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 코너

## 태국정부는 계육수출에 환급제도 적용

태국 상업성은 2월에 들어 계육수출부진 타개책으로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태국 양계업자는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자 가격경쟁력이 매년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번의 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태국 상업성은 국내 계육수출업자들이 가축사료의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과징금을 일시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대안으로 계육수출업자에 대하여 환급을 실시하는 제도를 택하였다. 환급금액은 계육수출 1톤당 684비트로 예정하고 있다.

이번 환급재원으로는 가축사료의 원재료에 대한 수입과징금과 수입관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태국 국내의 양계산업은 최근 갑자기 수출력을 강화시킨 중국, 브라질과의 경쟁에서 매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수출가격은 태국산과 비교하여 1톤당 약 200~300달러(US) 정도까지 하회하고 있다.

태국의 수출가격이 높은 요인으로 국내에서 사료가격의 상승에 따라 계육생산비는 수년전에 비하여 약 30%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 양계업자는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CP그룹은 국내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수출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료비와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 중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어 태국으로부터 생산이완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환급개시일은 미정이지만 금년 1월 1일부터의 수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MJ. 94. 3)

## 식품첨가물 용액침적에 의한 세균의 제거

도계장에서 사용하는 기재류의 미생물 오염실태조사나 오염제거에 대하여 연구도 많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계장에서 도계해체에 사용한 도마나 칼을 개미산을 주성분으로한 식품첨가물 용액에 침적하여 부착한 세균수를 측정하고 세균의 제거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도계해체에 8시간 사용한 도마 5개를 세제로 세척하고 개미산 97%, 서당지방산에스테르 2%, L-이스코르빈산 1%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의 0.3% 수용액 50ℓ에 15분, 30분, 1시간, 3시간, 15시간 침적하였다.

또 칼 5자루를 동일한 수용액 4ℓ에 침적하였다. 다음에 도마 20개를 1개씩 15분간 연속적으로 동일한 수용액 10ℓ에 침적하였다.

세정 전후와 침적시간 종류 직후에 도마 중앙부, 칼자루와 칼날에 부착한 세균수를 측정하였다. 또 침적 전후에 용액의 pH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용후의 도마에서 1㎠당(이하동일) $10^{4.5}$, 칼자루에서는 $10^{4.8}$개, 칼날에서는 $10^{3.9}$개의 세균이 세정후는 $10^{2.4}$, $10^{3.9}$, $10^{0.9}$개의 세균이 검출되었다.

도마를 15분간 이상 침적하면 세균수는 $10^{1}$ 이하로 되지만 침적시간이 길면 매우 적은 세균수만 검출되었다. 도마 20개를 연속적으로 침적한 후 검출한 세균수도 $10^{1}$개 이하이었다.

용액의 pH는 2.3~2.4로서 침적후에 2.5이상이 되는 경우는 없었고 실험범위내에서 용액의 세균제거 능력저하도 없었다. (NK. 94. 12)